

60년 외길 과녁... 전통의 혼과 맥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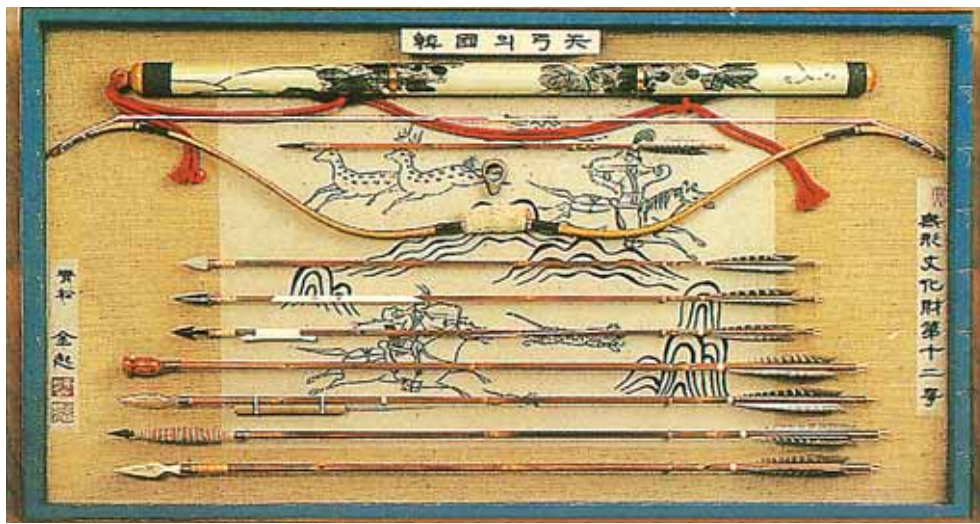
광양 공시장(弓矢匠) 김기 선생

중국은 우리 민족을 '동이(東夷)라고 불렀다. '이(夷)자를 파자(破字)하면 '큰 대(大)와 활 궁(弓)'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래서 동이는 '활을 잘 쏘는 동쪽 민족'이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한민족의 활은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현재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양궁실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양 공시장(弓矢匠) 김기(75) 선생은 60여 년째 전통 활과 화살을 만들고 있다. 활을 만드는 이를 궁장(弓匠), 화살을 만드는 이를 시장(矢匠)이라고 부르는데, 공시장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과 기능을 가진 장인을 일컫는다.



1986년 道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 화살 만드는데 120회 이상 손길 필요 정교·섬세한 광양화살 궁도인에 인기 공시전시관 조성 등 기능 전수 혼신



광양 공시장 김기 선생이 만든 활과 각종 화살 작품

◇60여년 활·화살 제작 외길=여수출신인 김기 선생이 활과 화살 제작기술을 익힌 계기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개성에서 내려온 공시장 박상준, 조명제 선생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김기 선생이 14살이던 1953년, 여수지역 궁도인들이 총무장(여수 궁도장) 신축 이후 박상준(전통 화살제작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명장에게 화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때 여수를 찾아와 화살을 제작하는 스승에 반해 공시일을 배우게 됐다.

이후 김기 선생은 마산의 조명제(화살) 선생과 예천의 권영록(활), 권우갑(활) 선생 등에게 화살과 활을 만드는 제작기술을 전수받은 뒤 공시장으로서 꾸준한 화살과 활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전통화살 제작과 전승에 힘써 온 공을 인정받아 1986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다.

활 제작과정은 우선 대나무조각과 뽕나무조각, 물소뿔 등을 다듬는데 대나무와 뽕나무는 불에 쪄서 구부린 다음 연결시킨다. 이 같은 과정 후에 1개월여의 건조과정(정화관)을 거쳐 고자깎기를 한 다음 활 사용자의 체력에 맞춰 활의 강약을 조절한다.

우리나라의 활은 쇠뿔(牛角)과 쇠심줄을 사용한 각궁(角弓)이 특징이며, 제작도구는 톱·대패·나무망치·줄·갈·송곳·집게·나루·빗·쇠뿔 등이 쓰인다. 활장(활의 몸)의 손잡이 부분(중통)과 양쪽 끝(정발목 고깃잎)에는 참나무와 뽕나무를 각각 대지만, 강력한 탄력을 유지하는 오금 부위에는 죽심을 넣고 그 안팎에 쇠뿔과 쇠심줄을 부러뜨려 접착시켜 탄성 강도를 높였다.

이때 수우각(水牛角=무소뿔)을 깎아 낸 것을 '흑각궁(黑角弓)이라 하고, 한우각은 '백각궁(白角弓)이라 한다. 백각으로는 큰 활을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흑각궁을 높이 쳤다.

또 '정량궁(正兩弓)은 활장의 길이가 5.5척, 군왕이 위용으로 지니는 '예궁(禮弓)은 6척에 달하고, 전투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마용의 동계(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지는 제기)는 단궁(短弓)으로 사용됐다.

또 화살은 몸체로 쓸 대나무(시누대=箭竹)를 골라 충분히 건조시킨 후 끈게 잡아 활줄을 끼울



공시전시관 조감도

오닛(복숭아나무)과 깃달기 등 갖가지 세심한 합재(合材) 제작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재료는 대나무(싸리나무)·깡지·민어 부레풀이다. 화살 종류는 목전, 철전, 예전, 세전, 유업전 등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화살은 대나무로 만드는 유업전이 대부분이다.

김기 선생은 궁도 3단의 궁도인이기도 하다. 자신이 제작한 화살을 직접 쏘아 실용하며 명중률과 탄력성을 세심하게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공시전시관·교육관 연말 개관 앞뒤=아들철호(41)씨도 아버지에 이어 활과 화살 제작의 맥(脈)을 잇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광양시는 총사업비 8억원(국비 3억·도비 1억·시비 4억원)을 투입, 광양읍 구산리 신기마을에 지상 2층(건축면적 290.25㎡, 연면적 438.36㎡) 규모의 공시전시관 및 교육관, 체험관 등을 최근 건립하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교육관 1층에 전수공방과 전시실·휴게실·체험학습장, 2층에는 교육실과 기능보유자·전수 교육조교 연구실, 생활동 등을 갖춰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공시 전시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기능전수에 어려움이 많아 연말 개관 하려고 추진중이나 추가 예산확보 및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 등 공시장 지원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김기 선생은 "화살만드는 과정은 적어도 120회 이상의 손길이 가는 정교한 작업 끝에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광양화살은 정교하고 섬세해 성능이 우수하고 명중률이 높아 궁도인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광양항만공사 '뉴비전 2025' 선포 글로벌 종합 항만 만들기 본격 추진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지로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확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남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미래 모습을 담은 '뉴비전 2025'를 '국가산업 부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선포했다.

여수광양항은 2013년 기준 2억4100만톤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수출입 화물이 77%인 1억8400만톤에 달하는 국내 제일의 수출·입 전진기지다.

공사는 이처럼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당량의 수출·입 화물을 여수광양항에서 처리하고 있고, 항만 기본계획과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에 일조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가산업 부흥을 선도한다'는 표현을 비전에 담았다.

또 제철과 석유화학,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크루즈, 레저 등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글로벌 종합 항만'이라는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글로벌 항만역량 확보 ▲항만운영 고도화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공사의 기업정신인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각각 도전성(Challenge), 창조성(Creativity), 협력성(Collaboration), 미래중시 경영, 가치중시 경영, 지식중시 경영으로 정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中 선전시 결연 10주년 기념 식수 정현복시장 중국방문 표지석 제막식도



광양시와 중국 선전시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정현복 시장 등 광양시 투자유치 대표단은 지난 17~19일 중국 선전시를 방문해 광양만권 투자유치 설명회와 함께 양도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식전)와 표지석 제막행사를 가졌다.

식수 행사에는 쉬진 선전시장을 비롯해 바이오티엔 시외의 의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해 중국 선전시의 광양시에 대한 각별한 환대와 신뢰를 보여주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념식수인 '궁분자경'은 단결과 사랑, 반영을 상징하는데 광양시와의 인연을 영원히 기리고 양시가 더욱 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시장은 현지 언론사 2개사(선전일보, 선전특구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름다운 백운산과 섬진강, 문화행사를 소개하면서 "광양만권의 투자와 관광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와 中 선전시는 지난달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바이오티엔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및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가진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철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